

土地國有論과 勸農政策六科

農政學上으로본茶山先生(上)

李勳求

『우리는 자기의 것을 잘잇는 病에 걸이엇다는 말을 자조하게 되고 듯게 된다』 또 우리는 우리의 先人들이 所謂『慕華病者』였엇다고 痛嘆하는 소리를 하고 듯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날에 잇서서 依然히『慕外病者』 또는『慕他病者』노릇을 하고 잇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境遇가 만타. 다시 말하면 自己의 것을 自己가 모르고 自己의 祖先을 自己가 모르고 自己의 學問을 自己가 모르고 잇는 境遇가 만흔 것이다.

茶山先生의 百年祭가 도라왔다. 紀念式典을 舉行하여야 되겟다는 말을 드를 때의 내의게는 形言할 수 업는 歡喜가 心鏡에 빚혓었다. 그것은 물론 碩學巨擘으로 一代의 學界에 最高峰을 占據하엿던 茶山先生을 追慕하는 微衷의 發露도 發露어니와 또 다른 反面에 잇서서 인제는 우리도 우리의 前人을 崇拜하며 偉人을 追憶하여서 自己의 것을 求覓하여 보려고 하는 참다운 覺醒이나고 眞正한 省察이 생기엇다는 點에도 이섯다. 沙翁祭, 杜翁祭 칸트祭 等等이 잇다고 할 적에 筆者에게는 懷疑와 感傷이 업지 안이하엿던 것이다.

그것은 곳 우리가 우리의 沙翁과 杜翁을 내어버리어두고 慕他思想 또는 拜外思想이 이런 機會에 浸漸하여서 再次로『慕華病者然』한 愚를 演出치 안이할가 저어하엿던 까닭이엇다. 이번의 茶山先生 百年祭야 말로 우리가 우리를 차저내는데에 잇서서 一大 劃 時期의 意義를 가진 것이다.

先生의 著述은 經國濟民의 至言要道 안임이 업는 것은 勿論이어니와 名物度數로 百家技藝에 關한 것일지라도 該博精通치 안이한 것이 업다. 더욱이 文章과 經學에 잇서서도 前人未到의 境地를 開拓하엿다. 實로 先生은 絶世의 偉才로 稀罕한 碩學이엇던 것이다. 不幸히도 그 著書가 浩瀚되고 또 邪惡에 橫罹하여 不遇의 逆境에 處하엿기 때문에 世上에 刊行된 것이 몇몇가지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先生이 下世한지 一世紀인 오날에 與猶堂全集이 刊

行되는 것은 實로 先生의 遺 德이 다시 한 번 光輝를 나타내는 것에 不過하거니와 우리 學界에 큰 貢獻이 잇을 것을 確信하는 바이다.

農政學者로서의 先生은 實로 拔群 超類의 識見을 가졌던 것이다. 『經世遺表』(邦禮草本)와 『牧民心書』와 및 『欽欽新書』等 著書를 通하여 表現되는 先生의 農業政策은 學術이 未進하고 文獻이 稀貴하였던 當時임을 想起할 적에 非才淺識의 後學인 우리 무리로 하여곰 啞然失色케 하고 따라서 景慕尊仰의 心情이 油然而起함을 禁할 수 업게 하는 것이다. 實로 先生은 저 農政學의 鼻祖의 稱을 두는 獨逸의 폰콜츠(VonColy)座右에 迥出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先生은 農業政策 上 土地問題가 根幹이 되는 것을 맨 처음에 看破하고 田制의 改證과 및 籌劃에 一段의 卓見을 세웠다. 漢族 田制, 役に 잇서서도 牛田稅를 爲始하여 漢, 唐, 明, 宋의 歷代田制에 深奧한 研究로써 그 立論이 盲目的 慕華論者인 韓百謙 柳恨 等の 愚를 無言 中에 道破하였슴은 勿論이요, 明의 『農政全書』 著者인 徐光啓의 所說에 比하여 보아도 一般의 深刻性을 具體化하였다. 그러나 先生은 時不利兮로 그 所信을 麗末의 趙浚과 가티 實行치 못하였스니 千古의 恨事가 안일까?